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미래를 JOB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

목차

대상

-

‘워크’에 빠진 나, ‘워크넷’이 건지다

최우수상

-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고르는 것과 같다

우수상

-

고마워, 워크넷!

우수상

-

지성이면 감천

우수상

-

워크넷은 내 인생의 동반자

미래를 JOB다

-

목차

장려상

-

2주 초고속 취업 성공기

장려상

-

신뢰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다

장려상

-

‘워크넷’이라는 등대를 밟 삼고

장려상

-

행복한 엄마의 일자리

장려상

-

아름다운 동행, 희망의 나라를 펴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대상



‘워크’에 빠진 나, ‘워크넷’이 건지다

나이 서른다섯.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취업은 물론 결혼도 진작 해서 아이를 기르는, 어엿한 ‘진짜 어른’이 연상되지 않나요? 하지만 저의 서른다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혼은커녕 취업도 못한 동네 백수. 실의에 빠진 채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서 슬리퍼 질질 끌면서 동네 피시방에나 들락거리는 ‘동네 노는 형’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한들 재미있을 리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나 때우며 세월아 네월아 하는 식일 뿐입니다.

피시방에서 주로 하던 게임은 ‘워크래프트’, 일명 ‘워크’로 불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백수가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안과 동병상련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현실에서는 잘난 사람, 잘나가는 사람, 직장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등등 온갖 사람들이 미취업자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지만, 게임 속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게임에 접속

하면 저와 비슷한 처지의 백수들이 득시글거립니다. 그래서 게임은 백수들의 안식처입니다. 인생을 좀먹는 게임에 싸구려 위안을 얻어가는 악순환, 저는 그 검은 고리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좋은 곳에 이직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직한 번 했을 뿐인데 연봉은 두 배로 뛰었고, 복지와 처우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저랑 같이 대학에 다닐 때는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학점도 낮고, 인간관계도 미숙했던 그 녀석이 순식간에 ‘잘난 사람’이 되자 서글픔과 함께 정신 번쩍 드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자존심을 접고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답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구직 사이트 매일 들여다보기’였습니다. 저는 ‘알바0’ 등의 알바 사이트는 알았지만, 구직 사이트는 뭐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직 사이트가 가장 좋은 곳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녀석이 지은, 정말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은 아직 잊히지 않습니다. 하긴 서른다섯이나 먹은 인간이, 그것도 직장도 없는 인간이 구직 사이트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녀석은 사이트 이름을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워크넷이 제일 낫다는 귀뜸을 해줬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기로는 구직 정보의 양이나 다양함에 있어서 가장 낫고,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다 보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워크넷 인증은 채용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채용공고를 미끼로 사기를 치거나, 미취업자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한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크넷 인증은 곧 정부가 인증하는 회사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날로 저는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1년쯤 전이네요.

하지만 막상 회원가입을 했다 뿐이지,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알바 외에는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워크넷에서 재미삼아 해본 직업심리검사가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딜 가든지 바닥부터 구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신입치고는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 취직이 돼도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던 겁니다. 또, 저를 뽑을 회사 입장에서 저의 나이를 큰 단점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직장보다는 작은 직장, 인원수가 많은 데보다는 적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사이면서, 저의 거주지인 서울에 있으면서, 급여도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면서, 제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워크넷의 치밀하고 섬세한 검색기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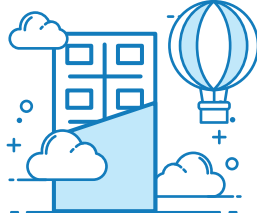
워크넷은 근무지역, 직종, 기업형태, 상장여부, 기업규모, 우대조건 등 조건별로 아주 세분화된 검색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나침반’은 임금, 자격증, 채용조건, 직종별로 가이드를 제시해줍니다. 그 중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취업나침반’과 기업규모별 검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제 적성에 맞는 직장을 원하되, 적지 않은 나이로 인해 규모가 작은 회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해도 제 적성에 맞지 않으면 오래 다닐 수 없고, 적성에 맞다 해도 조직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면 역시 금방 그만둘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워크넷의 도움으로 여기저기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2군데 중 한 군데에서는 면접을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일해 본 경험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그런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원서 내는 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반신반의 하면서 내봤는데,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걸려오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확 높아졌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자괴감 때문에 자신감이 하나도 없던 저였습니다. 늘 우울했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데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이렇게 많다는 걸 보며 제가 꽤 쓸 만한 인간이구나 하는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워크넷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자신감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밀하고 섬세한 검색기능 덕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제가 원하고, 회사가 저를 원하는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서류전형 통과 확률이 매우 높았고, 면접 보러 다니는 것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울함, 자신감 상실, 자괴감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웅크린 백수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크넷은 바로 그걸 제게 선물해줬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작년 7월 13일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제외 사원수 2명의 아주 작은 신문사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사원이 적다 보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워낙 사원이 적어 사람 하나하나 귀한 데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말 그대로 사원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배려해주셨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제가 원하는 직장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른다섯의 나이에 신입으로 받아주신 사장님과, '워크'라는 게임에 빠져있던 저를 구해준 워크넷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슬쩍슬쩍 웃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워크넷에서 보내는 문자 때문입니다. 취업에 성공해서 아침마다 남들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제게 주어진 자리(예전엔 이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직장인들이 자기 책상과 의자에 앉아 전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 말입니다.)에 앉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가끔 워크넷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취업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자메시지이지만, 나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아닌 누군가가 저의 취업 여부를 걱정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참 고마웠던 것입니다.

워크넷, 1년 전 지인에게서 처음 들어본 그 낯선 이름이지만, 제게는 은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취업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고르는 것과 같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장애인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Life's like a box of chocolates’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고르는 것과 같다고. 인생에서 내가 어떤 초콜릿을 고르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운에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였던 아들 포레스트 검프에게 어머니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검프가 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어머니는 말합니다.

2016년 겨울, 저는 실직을 당했습니다. 제 나이 마흔 다섯이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직 후 우선 아들 학원부터 끊었습니다. 당장 은행에서 대출한 원리금은 무슨 돈으로 갚아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결혼 후 약 십오 년 동안 밖에 나가 단 한번도 돈 벌어 본 적 없는 순진한 아내는 껌뻑껌뻑 제 눈만 쳐다보며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잔뜩

겉먹은 아내에게 나만 믿으라며 아내에게 큰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전 사실 재취업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 톰 행크스가 나왔던 옛날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서 한줄기 마음의 위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장애인였던 검프에게 닥쳤던 현실들이 운 좋게 하나하나 잘 풀렸습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는 단지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 고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그의 어머니 말대로 검프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거기에 운도 따라와 유명세를 타고 그는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것, 이 영화가 그 당시 나를 일깨운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실직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우선 그간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회사 비용을 썼던 핸드폰 요금 고지서도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업무를 핑계로 회사 법인카드로 넣었던 차 기름도 제 돈으로 넣어야 했습니다. 돈이 아까워 차를 주차장에 세워둔 채 아예 난 차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학원을 끊을 때는 정말 부모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학원 안가도 괜찮다며 오히려 못난 아빠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퇴사 후 실업자로서 생활의 변화에 정신을 차리는 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뭐가 있는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봤습니다. 산업 형태가 바뀌어 명예퇴직을 당한 저는 구조적 실업 대상자라 제 직장 경력을 재취업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취업포털 사이트에 비슷한 직종으로 수백 통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면접 제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에 맞지 않는 경력으로 당시 동종업계 이직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중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밖에 없는 암담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당시 스스로의 힘으로 재취업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워크넷'이었습니다.

우선 워크넷은 국가가 운영하는 취업관련 기관입니다. 일반 사기업체 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워크넷 접속 후 첫화면에 나오는 진로적성 검사부터 차근차근 나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나마 상담직에 적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장롱 먼허이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제 미래가 불안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당장 상담분야 입직보다 훗날을 기약하고자

2013년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따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 분야로 전직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이직이 아닌 직업을 바꾸는 전직이라 쉽지 않았습니

다. 워크넷에 우선 구직등록을 했습니다. 사진을 붙이고 경력을 기술하고 자기 소개서도 잘 적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간 쌓았던 경력과 생소한 분야인 직업상담 관련 업무가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업무를 하면서 외근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 상담을 하고 합의점을 찾았던 그런 사소한 사항을 꼬투리 삼아 직업상담 경력과 매칭을 시켜보려 했습니다. 직업상담 분야 입직은 이 분야 경력이 없었던 제게 그리 만만하게 열리지 않았습니

다. 많은 나이에 신입 입직 조건과 상담분야 경력 부재로 수십 수백 통의 이력서를 모집 업체에 보냈지만 단 한 건의 면접 제의조차 못 받았습니다.

어느날 워크넷 채용정보 왼쪽 하단 메뉴의 ‘e-채용마당 일자리’를 통해 직업상담사 무기계약직을 뽑는다는 정보를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봤습니

다. 제가 응시한 지역에 단 한 명 뽑는데 거의 팔십 여명이 지원하더군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 결과는 세 과목 평균 84점으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무경험자가 입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선발인원이 너무 적어 아쉽게만 느꼈습니

다. 무기계약 필기시험 낙방 후 전 다시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눈만 껌뻍 거리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

다. 학원을 끊은 이후 아들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니 암담했습니다. 아들에게 성적 부진에 대해 이렇다할 질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전 다시 용기를 내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응모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사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

정성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한 업체로부터 면접제의 연락이 왔습니다. 직업상담 경력이 없는데 괜찮냐고 먼저 제가 반문했습니다. 업체는 괜찮다며 우선 면접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면접에 응했고 직업상담 경력 없이 고용노동부 산하 민간위탁 업체인 한 무료취업 알선센터에 입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직책이 '사무원(사원)'이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급여는 너무 적었지만 전 직장의 임금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취업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껌뻑껌뻑 하던 아내의 눈꺼풀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를 떠나서 낙오되지 않았다는 소속감에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워크넷의 방대한 취업정보와 포기하지 않는 저의 의지 덕분입니다. 이 곳의 입직을 발판삼아 차근차근 경력을 쌓고 더 원대한 꿈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하자고 마음먹으니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전직에 성공한 일인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취업을 간절히 바란다면 우선 워크넷 접속을 권합니다. 워크넷 첫 페이지에 나오는 진로적성 심리검사를 통해 우선 자신을 진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후 꾸준한 검색과 입사지원을 한다면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취업 이후의 삶은 포레스트 검프처럼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초콜릿이 내게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후의 삶은 운에 맡기고 우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작지만 자기 분야에서 '최선'이 하나하나 모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변하게 할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십 중반을 넘은 제가 감히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건 인생은 정말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고르는 일과 같습니다. 초콜릿 상자와 같은 워크넷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한 번 믿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 좋은 결과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에게 행운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우수상



고마워
워크넷!

2016년 기적 같은 6개월이 지나갔다.

느닷없는 실직과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마치 공식처럼 실패로 이어졌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쌓여가는 적자는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했다. 거기서 멈춰야했지 만... 50을 넘긴 이 나이에 취업은 불가능할 것 같았고 그 조바심은 어떻게든 이사업을 버텨내보려 대출에 대출은 끝내 파산이란 마지막에 가서야 끝이 났다. 창업의 실패보다, 모든 걸 잃어버린 파산보다 더 암울한건 아무런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덩그러니 놓여진 53세 중년남성의 미래였다.

2015년 겨울은 내게 그렇게 혹독했다.

모두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1월초 난 참담한 심정으로 고용노동부를 찾았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찾아간 고용노동부에서 알게 된 워크넷은 내게 마지막 생명줄이 었다. 나 또한 처

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의 한 방법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던 중 다양한 정보와 검증된 수많은 구직회사들을 보고, 그래 여기서 내 문제를 해결해보자!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물론 수많은 구인, 구직 잡지와 사이트가 있지만, 4대보험이 보장되지 않은 회사의 소개 등. 신뢰할 수가 없었고, 이제 또다시 취업마저 (속거나) 실패하면 정말 끝일 것 같아.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워크넷은 믿을 수 있었기에 워크넷만 의지했다.

회원가입도하고 휴대폰 어플도 설치하고 어떤 곳에서 구인을 하는지, 내가 무얼 할 수 있는지. 정말 매일매일 워크넷을 검색했다. 간절히 취업하고 싶었다. 물론 당장 취업할 곳은 있었겠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는 53세 중년남성에게 직종은 너무나 제한적(경비, 청소, 단순생산)이었다. 그동안 자영업을 하며 마지막 몇 년을 주점을 운영하며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해 이제 이 나이에 힘도 부쳤고 건강 또한 많이 나빠진 상태라 무엇보다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업이 갖고 싶었다. 신중하게 이 선택이 얼마남지 않은 정년까지 마지막 직업이다. - 고려해야 했고 또한 요식업을 하며 보낸 지난 10여년의 시간과 경험 또한 아쉬웠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단체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원을 목표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직업은 조리사 자격증이 필수였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에 가입했고 내일배움카드로 OOOOOO학원(1/25~3/25)에서 배우며 한식조리사 자격증에 도전, 한번 에 취득(3/30)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았다.

워크넷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직종에 사업주가 어떤 사람을 구인하는지, 거기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꼼꼼히 분석했다. 실무경험자우대, 청년우대, 여성우대..... 나의 이력으로는 뭔가 부족한듯 했다. 또 다시 내일배움카드로 OOOOOO학원(4/19~5/19)에 등록해 중식조리사 자격증에 도전, 그 또한 한번 에 합격(5/25)했다. (집은 인천. 계양구인데 빨리 시작하는 학원을 찾아 서구 검단으로, 일산으로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정말 열심히 했다.) 이제 10여년의 자영업경력과 한식, 중식 두가지 조리사자격증까지 있으니 요즘말로 스펙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겼다.

취업성공패키지 교육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휴대폰 어플을 통해 끊임없이 워크넷을 검색했다. 그러던 중 눈이 번쩍 뜨는 정보를 발견했다. 그동안 막연히 집이 공항철도역(계양역) 부근이라 출퇴근이 용이한 인천공항에서 일하면 좋겠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물론 지금은 통근버스로 출퇴근한다.) 인천공항에 사업체가있는 회사들과 중구청이 공동으로 5월 25일 공항철도역(운서역)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정보였다. 워크넷을 통해 공고한 마음에 드는 회사가 그날 직접 면접을 본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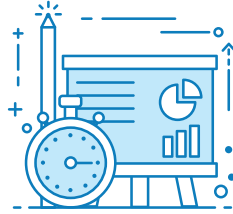
두가지 자격증을 첨부한 이력서 여러부를 만들어 당일 운서역에서 내가 원하는 직종의 회사 서너군데에 이력서를 주고 면접을 봤다. 이틀 후 무려 2군데서 합격통지를 받았고 지금은 항공기 기내식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6월 1일부터 출근해 한달째 근무하고 있다.

절망스런 마음으로 고용노동부를 찾은지 5개월 워크넷을 통해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을 쫓아 노력했고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이 끝난지 7일만에 워크넷이 내게 안겨준 인생 2막의 기적의 순간이었다.

이제 이회사에서 정년을 맞으리라 생각하여, 더이상 구직이 필요치 않아 휴대폰의 워크넷 어플을 지울까도 생각해봤지만 내게 인생 2막의 기적을 안겨준 워크넷에 대한 고마움과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부적처럼, 오늘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워크넷 어플을 들여다본다.

고마워워크넷!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우수상



지성이면 감천

대학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35년간 근무하고, 2014년 1월 정년을 2년 앞두고 관례대로 만 56세에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부부동반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친인척 방문 등 하고 싶은 것도 했지만, 아직 재학 중인 남매와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아내이기에 막상 가장인 제가 벌이가 없다 보니 생활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식구 휴대폰 요금에 자동차 운행, 자녀 학자금, 수도광열비 및 각종관리비, 보험료, 용돈 등 한번 올라간 씹씀이를 당장 낮추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8개월간은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 보면서도 실업급여가 도움을 주었는데 일년 지나고 나니 벌써 퇴직금 절반 이상이 햇볕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각종 취업정보 사이트에 구직등록하고 피동적으로 기다렸더니 맨날 오는 전화는 다단계 등 판매 업체나 보험, 카드업계 영업추진 뿐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장래에 대한 불

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워크넷을 통하여 성실(중장년층)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작년 2월에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모임에 가니 14명 모두가 저와 비슷한 처지였고 4일간 교육훈련을 통하여 과거에 재직했던 취업분야나 직위만 고집해서는 안되고, 현재 제 자신의 처지를 냉철히 이해하며 스스로 어떤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국비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인근의 컴퓨터학원에서 사무자동화(파워포인트, 엑셀 등)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는 수시로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연락을 취하면서 워크넷을 활용하여 몇 군데 지원서를 넣었고 최종 면접도 보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과거 경력 등으로 고용주 입장에서 일 시키기가 부담스러웠던지 취업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탈락 때마다 스스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상대방에게 더욱 겸손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능숙한 일처리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자판에서 독수리 타법을 고치는 것부터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및 PC에도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루 7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워크넷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작년 10월 워크넷에서 검색하여 집 인근 분당 벤처빌딩에 있는 신설업체에 입사 지원하여 어렵게 합격하였고 11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재관리원으로 입사하여 발주 및 자재관리 업무를 취급하였지만 몇 달뒤 부터 제 나이에 파워포인트 및 엑셀도 다룰 줄 알고, 과거 은행 지점장 경력을 살려 경영 및 채권관리 등에 힘쓴 결과 지금은 관리부장으로 승진하여 명실상부한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업 시작한지 2년 밖에 안되고 직원 7명의 소기업이지만 직원들과 인화단결 하면서 인생 2모작을 새로 시작하는 직장으로써 누구보다도 애착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게 되었고 ‘성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국비 지원으로 컴퓨터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사무자동화과정을 배우지 못했다면 지금 제 나이에 이렇 대접 받으면서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직정보나 직업, 진로 및 채용정보에 워크넷만큼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취업정보 시스템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직종별, 지역별, 기업형태별로 나누어져 있고 또한 맞춤형내용이나 청년뉴스 등 한눈에 보는 취업지원센터로 모바일로도 자가진단이 가능한 것이 참 편리합니다.

워크넷이 있었기에 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었고 1년이상 장기 실업상태로 있으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고용의 디딤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워크넷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우수상



워크넷은 내 인생의 동반자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운이 좋게도 서울에 있는 작은 기업에 취업을 했다. 나도 매일 매일 출근할 곳이 있다는 설레임과 사회인으로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뻐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임신을 한 상태로 거래처에 가서 일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근무 하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했지만 사장님과 주변의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나도 회사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직장생활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그만두어야 했다. 서울에는 연고도 없고 본가와 시댁이 부산이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후 아이 하나를 더 낳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편의 월급만 쳐다보면서 아이 둘을 키우기란 쉽지 않았다. 남편은 작은 기업에서 기계 부품을 배달하여 주고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가져오는 것이 전부였다. 매달 매달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래도 “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

을 거야. 젊으니까 다할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거야” 라고 늘 스스로를 위안하며 하루 하루를 보냈다. 그래도 남편의 월급이 매년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것은 고통에 가까웠다. 엄마로서 아이들을 남부럽게 키우지는 못해도 남들만큼을 해 주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나 자신의 삶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길은 바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5년 넘게 전업주부로서 있었던 나에게 대학졸업장 하나만 가지고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이었다. 만일 그때 워크넷이 있었다면.....

집 가까이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같은 동네에서는 언니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전선을 연결하는 부업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부업도 그동안 동네 언니들과 원만하게 지낸 덕분이었다. 하루 종일 전선 케이블을 연결하고 받는 돈은 만원 남짓이었다. 손이 붙고 허리가 아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과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반찬 하나 더 해 줄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도 어엿한 직장인으로 다시 사회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던 터라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

우유배달과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다

전선케이블을 연결하는 일은 시간에 비해서 버는 돈이 너무 작았다. 중학교시절 신문배달을 하면서 학교에 다녔던 생각이 떠올랐고, 인근 동네에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고 오후에 자격증 공부를 하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유배달 대리점 사장님을 찾아갔다. 사장님께 우유배달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힘든 일이고, 수금을 제대로 해 와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정말 할 수 있겠냐고 수차례 되묻는 것이었다. 나는 사장님께 그 일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수차례 말씀 드리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사장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한 달만 먼저 해 보라 하셨다. 난 그 일을 5년 동안이나 지속할 수 있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가 되기 전까지 우유배달을 했다. 추운 겨울날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는 일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더 속상했던 것은 우유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정말 미웠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받아야 할 아르바이트비에서 당연히 차감됐다. 하

지만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 큰 용기가 되었다.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본 후에 오후에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더 새로웠고 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유배달을 하면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집근처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곳에 가서보니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처음 시작한 공부는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었다.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초등학교 돌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초등학교 수학지도사, 음악줄넘기 지도사, 논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자격증을 하나씩 딸 때마다 행복했고, 그 성취감은 새벽에 우유 배달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모두 날려 버릴 수 있었다. 드디어 나는 우유배달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보습학원에 시간제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부족한 공부를 도와주고 가르치는 일이었다. 우유배달과 학습을 병행한 첫 성취가 바로 보습학원에 선생님이 된 것이었다. 그 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내가 직장을 그만 둔지 거의 7년 만에 집에서 나와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수입은 작았지만 그 동안 노력해서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일 자리를 얻었다는데 너무 행복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워크넷과 만나다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평소 해오던 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직업상담사는 나처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람 있는 일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후에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오전에는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직업상담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나에게 직업상담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심리상담이론, 직업학과 관련한 과목들은 아주 생소하여 처음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족한 것은 인터넷강의를 듣기도 하면서 보충은 했다. 아이들을 챙기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고 지금도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부족한 수면시간을 감수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와 같은 길은 준비하는 많은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1년 동안 준비한 끝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내가 직업상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이 바로 워크넷이었다.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로 가득했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많은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자격증을 준비해도 갈 곳이 없거나 불확실하다면 막연히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 뒤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직업상담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었다. MBTI, 에니어그램, CAP+ 강사 양성과정, 심리상담과정등을 이수할 수 있었다.

드디어 대학교 취업지원관이 되다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워크넷을 통하여 민간 취업알선 기관에 정식 사원으로 취업을 하였다. 워크넷을 통해 계속 입사지원을 하던 중에 민간취업알선 기관으로부터 면접을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면접을 볼 때는 그냥 담담했는데 대학 졸업 후 10년이 다 되어가는 즈음에 다시 취업 면접 통보를 받으니 심장이 터질듯 기쁘면서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엄습해 왔다. 면접장에서 나는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정말로 내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그래서인지 3일 후에 합격통보를 받았고 정식사원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첫 출근 하던 날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 혼자 버스를 전세내서 타고 가는 기분 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취업상담과 알선업무를 수행했고 그것이 오롯이 나의 경력이 되었다. 나는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 청년들의 취업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는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학을 나와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대학생이 너무 많다.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워크넷이 많은 학생들의 앞길에도 나처럼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나는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 취업지원관에 도전하기로 했다. 당연히 워크넷이 있기에 내가 정보를 얻고 입사지

원서를 작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고, 워크넷은 늘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워크넷에 작성되어 있는 내 이력서에 수정을 하여 올려 놓았다. 이런 점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워크넷 취업지원관 모집공고를 보고 나는 안양에 있는 D 대학교 외에 민간 취업 전문회사 3곳에 입사지원을 했다. 대학을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서류전형 합격을 하였고, 면접을 볼 수 있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절에 지원한 기업 모든 곳에서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D 대학교와 민간 취업기업 두 곳에서 최종합격 하였다. 대학의 취업지원관은 계약직이었고, 민간 취업전문기업은 정규직이었다. 나는 고심 끝에 대학교 취업지원관을 택했다. 그 이유는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공부하면서 나를 채찍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교에 취업지원관으로 있으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인력개발학과 석사과정에 진학을 하였다.

워크넷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컨설턴트로 안내하다

대학원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정책과 직업정보, 기업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과목은 물론 전문 상담사가 되기 위해 심리상담기법, 실습 등 많은 과목들을 수강하였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다. 나의 목표는 취업과 진로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경험에 의해서 일을 해왔다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는 2년 동안 대학교 취업지원관을 마치고 전문기관을 찾기로 했다. 어느날 노사발전 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워크넷에 있는 나의 이력사항을 보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입사지원을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두말없이 입사지원을 했다. 워크넷에는 나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었기 때문에 입사지원은 너무 쉬웠다. 이것이 워크넷의 힘이고 대한민국 경단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나는 지금 노사발전재단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워크넷이 나의 인생을 안내하고 바꾸어 주었

다. 전선 연결하는 부업을 하고, 우유배달을 하던 전업주부가 컨설턴트로서 우리나라 일자리 고용창출에 미약하나마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워크넷의 전도사로서 일자리를 찾는 많은 경력단절 여성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2주 초고속 취업 성공기

다른 많은 학생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와 학업, 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까지 병행하다 보니 대학 입학 후 졸업장을 따기까지 무려 9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대학을 졸업하자, 제 손에 남는 것이라고는 사랑하는 아이 두 명이 있는 가정과 졸업장 뿐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느새 (한국 나이로) 30줄을 넘겨,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는 고졸 언니는 서른이 되자 그 어느 곳에도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 의사를 밝히는 곳이라고는 유흥업소나 전화로 물건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직종 뿐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한 아는 친구는 한 중소기업에 들어가기까지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가운데 무려 800통의 이력서를 써야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고시에 불합격하자, 아이들과 살아갈 미래, 우리 가족의 앞길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대전청년인력센터에 갔습니다. 그 곳에서는 워크넷 가입 여부를 물으며 이력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마침 대학교에서 졸업하기 1년 전, 취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워크넷에 가입한 터라 아이디는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희망 직종과 희망 임금을 묻더니, 워크넷에 올라온 두 가지의 구인 공고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처럼, 한 곳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오직 남자만을 고용 대상으로 선호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워크넷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자, 구인공고에서 고용 대상으로는 성별을 고지하지 않고, 이력서 단계에서 모두 성별을 이유로 불합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벼룩시장 신문을 읽고 지원한 곳에서는 무려 세 시간이나 기다리게 해 놓고 면접을 보러 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욱 훑어보더니, (아마도 외모를 이유로) 불합격시켰습니다. 때마침 연이어 들려오던 기업들의 불합격 소식은 저를 더욱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하게 했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잉여인간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조차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한 저였기에, 한시라도 빨리 알바 인생을 청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년퇴직까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였습니다. 월 매출을 1천만원 상승시키는 등,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알바를 하는 내내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팔시와 모욕, 자유로운 해고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서른이 넘는 사람들은 알바 고용주가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29살 여성이래. 나이가 너무 많아.” 어떤 알바지원자의 이력서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50세가 넘는 사장님(남성)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최소한 이러한 일회용품 알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백수가 되어 계속해서 이력서를 쓰게 되자, 일회용품보다 더욱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잉여인간이 되었다는 자괴감과 좌절감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조바심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취업한 친구나 고시에 합격한 선후배들과 저를 비교하며 전공 선택이나 학점에 대한 후회와 자책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전청년인력센터에 날마다 찾아가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우리도 오직 워크넷만을 인터넷으로 뒤지며 구인공고를 확인해서 지원자에게 알선해주고 있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구직자 스스로 열심히 찾아보아야 한다.”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저보다 더욱 절박해 보이는 4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날마다 줄을 서서 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구직자가 구인공고보다는 많아 보였습니다.

아는 친구가 자신의 외삼촌을 소개시켜 주었고, 외삼촌 역시 저를 고용하는 데 적극적이었지만, 아쉽게

도 그 분은 인사권자가 아니었고, 인사권자의 거절로 결국 친구 외삼촌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불합격 통보를 받고, 친구 외삼촌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자, 저는 말 그대로 '멘붕'상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저를 원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만 같았고,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것만 같았습니다. 늙어서 폐지를 줍고 있는 제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이런저런 상념들이 겹쳐지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남몰래 흐느껴 운 적도 여러 번입니다.

때마침 맞선을 보기 위하여 제가 사는 지역에 들른 친구가, “난 대학졸업 후 어학연수 다녀와서 8개월 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그 동안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썼어. 너 역시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야 할 거야. 난 그 때 26세였지만, 넌 나이도 많잖아.”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나 자신의 진정한 재능과 능력에 관계없이 성별이나 여성으로서의 외모, 나이 따위로 차별받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저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담은 이력서를 써서 회사에 지원하였습니다. 제 전공과 관련 없는 다른 곳에도 계속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직을 시작한 그 주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아이들을 돌보며 워크넷을 뒤져 무려 8통이나 되는 이력서를 써서 8개의 기업에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이력서를 회사에 맞추어 각각 다르게 작성하였고, 공통적으로 저의 장점인 영어실력, 전공지식, 그리고 번역 능력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중서 따위를 받지 않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을 도왔던 봉사활동 경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구직을 시작한지 열흘째 되는 수요일, 제가 열심히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협력업체 internship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신청서를 쓰고 있는데,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던 텅 빈 휴대폰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팝업되었습니다. 한 주식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 주식회사가 모집하고 있는 업무는 사실 저의 전공과는 일견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들이 모두 회사 업무관련 아이템을 열렬히 사랑하는 강력한 팬이었고, 저 역시 기록물을 정리하며 이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였습니다. 미리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깔고 반쯤 아무 생각 없이 이력서를 넣었을 만큼, 당시의 저는 삶이 주는 무게에 눌러 지쳐 있었습니다.

수신된 문자메시지는 제게 면접을 보러 와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 신문에 났었던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직 중에도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모든 사원의 교육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에 난 사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당 회사에 취직한 정사원이, 회사의 지원을 받아 한 대학에 다니며

회사대표이사님과 더불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 다니며 대학원과정을 이수하며 나 자신의 소질을 더욱 계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면접 장소에 가서 30분 정도 기다리자, 대표이사님이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직접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의 이력서를 읽고 감동했다고 하시며, 원래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려던 전형을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바꿔 신입사원 채용절차로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직원을 교육시켜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점 등 회사에 대하여 받은 긍정적인 인상과 입사지원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입사포부와 미래에 대한 vision을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기업이 발주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용역회사였습니다. 본사에서 제가 사는 지역까지의 거리가 문제점으로 등장하자, 저는 KTX를 타고 출퇴근할 용의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대표이사님은 감동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며, 회사에서 통근비 또는 여직원기숙사건립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차 면접이 끝났습니다.

2차 면접에서는 회사의 조직과 구성, 주요 업무를 대표이사님이 직접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 들으며 놓치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다 했습니다.

3차 면접에서는 이미 채용된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철도청에서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복잡한 채용절차가 끝나고, 드디어 신입사원으로서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업무 첫 날부터 야근을 하는 등 할 일은 많고, 공기업 자체가 아닌 외부 용역업체로서 불특정 공기업직원들로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 등 넘어야 할 산은 높지만, 저를 한 번 쓰다 버리는 알바 일회용품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우해주는 대표이사님 밑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만족합니다. 함께 일하는 다섯 명의 팀원들도 성격이 원만하고 뒤끝이 없어 마음이 편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대기업 간판, 높은 연봉에 대한 갈망을 버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접근하니, 제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너스로,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회사 업무와 아이템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노라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제가 이 회사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입사지원서를 내기까지는,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구인구직사이트의 구인공고를 연결하여 읽을 수 있게 해 준 워크넷의 존재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워크넷이 만약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구인공고를 바로 바로 자사 사이트와 연계하여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직업을 찾아 헤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모든 구직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워크넷의 장점은, 제가 입사한 다음, 이 회사와 거의 동시에 이력서를 제출했었던 여덟 개의 회

사로부터 모두 합격통지가 왔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정성껏 써서 워크넷에 등록한 제 이력서를 읽은 거의 모든 회사가-아쉽게도 한 발 늦었지만-저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저는 거절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느라 진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는 제 전공과 부합하는 회사들과 국내 유수의 대기업 협력업체도 있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어 좌절에 휩싸여 슬픈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하루 빨리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 한 사람의 떳떳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2주만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돈이나 기업의 크기, 인지도가 아닌 사람을 보자.’였습니다. 대표이사님의 인재에 대한 열정과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삼고초려의 정신이, 저로 하여금 제 직장관과 평생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알바를 한 끝에 얻은 깨달음으로, 저는 더욱 높은 연봉이나 처우가 아닌, 그 회사를 지배하는 대표이사의 인격을 선택하였습니다.

어쩌면 제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거절한 여덟 개의 회사가 더욱 전망이 밝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첫눈에 파악한 대표이사님의 인격이 진실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마련이고, 저는 당시의 상황에서 저의 가치관으로 스스로에게 맞는 최적의 회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및 인생의 동반자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하며 이만 줄입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신뢰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그는 / 그의 과거와 / 현재와 /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정현중-방문객 中)

2005년 가을.. 대학 졸업반에서 재학을 하며, 어려운 가정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조금 일찍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미비했던 것일까? 취업에 대한 정보도, 인맥도 많지 않았던 나는 하릴없이 그저 하루 하루를 속만 태우며 보내고만 있을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공무원으로 퇴직하시고, 소일거리라도 찾아보시려 시청 취업센터를 방문하셨던 아버지가 무언가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셨다.

“취업자리를 알아보려면 여기가 가장 확실하다더라.”

아버지가 주신 쪽지에는 ‘www.work.go.kr’라는 당시에는 생소했던 워크넷의 주소가 적혀있었다.

“워크넷이라는데, 취업센터 담당자에게 아들 취업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더니 적어주더라. 나라에서 만든거니 믿을만 할게다.”

평생 인터넷은 고사하고 컴퓨터라는걸 모르시던 아버지가 못한 아들놈 취업자리가 걱정되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센터 담당자에게 알아보셨으리라..

물론, 타 상용 취업알선 사이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급료를 많이 준다는 광고에 혹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는것도 모자라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등본까지 준비해 면접을 갔었는데, 가는곳마다 모집요강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이거나, 심지어 다단계나 피라미드같은 회사가 수두룩했다.

급료 부분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약속을 하여 회사 신뢰감에서 이미 실망을 하곤 했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도 전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던터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신뢰감을 보이면서 주신 사이트고,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라고 하니 약간은 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이트에 아이디를 만들고, 접속해보았다.

솔직히 워크넷의 첫화면은 생각했던 기대에 비해 실망스러웠다.

타 상용사이트에 비해 구인 업체수가 적었고, 제시된 급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이다.

‘아.. 이런 월급으로 다녀야해?’

최저 임금보다 약간 높은 금액에 일은 무척 고될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일색이었다.

하지만, 사이트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취업자리를 알아보니 뭔가 타 상용사이트와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나를 현혹시키고, 거짓말로 내 등본까지 가져간 회사들과 확연히 다른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우선 워크넷의 구인정보에는 시급이든, 일급이든, 월급이든, 연봉이든 무조건 금액이 제시되어있었던 점이다. 타 상용사이트는 대부분 ‘회사내규에 따름’이라거나 ‘연봉제시’라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불투명한 정보로 급료란을 채웠는데, 워크넷에는 깨끗하게 급료가 정해져 있었다는 점!

또한, 인증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득한 정상적인 회사만 사이트에 노출이 된다는 점들이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과 큰 신뢰감을 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아! 이렇게 까다롭게 기업을 선별해서 올렸기에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였구나!’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사회 경험이 전무한 내 능력으로는 워크넷에 등록된 회사에서 제시하는 급료가 맞을것이라고.. 그곳에서 능력을 키우고 경험을 축적해 더 큰 인재가 되겠다고.. 그 시발점으로 워크넷에서 소개해주는 회사로 취업을 하면 될것이라고.. 최소한 워크넷에 등록된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일테니까..

그래서 워크넷을 통해 소개받은 회사로 이력서를 넣고 곧 연락이 왔다. 국내에서 몇 개 안되는 화장실 관리 전문이며, 이쪽 시장에서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발전가능성이 큰회사라고..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면접관이었던 본부장이 한마디한다.

“빠른 시일내에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람이 다른곳에 가는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 다른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차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 회사를 재직하면서 참 많은 일을 배우고 또 많은 일을 해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담당자를 겸직하며, 워크넷에 열심히 채용공고를 올리고 1차 면접관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알게된 워크넷의 강력한 사실 또하나! 당시에는 취업의 뜻을 갖고 있으나 3개월간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채용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지원금이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곤 하였다. 한 회사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그 신입직원이 어느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투자를 해야하는데, 지원금 덕분에 회사에서는 그 직원을 큰 부담없이 교육하고, 투자를 하여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재직하던 회사에서도 그 지원금 덕분에 좋은 직원을 채용하여 오랜 시간동안 함께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것이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한 이후의 3개월이었던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IT의 최고 화두중 하나는 빅데이터이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정부 3.0도 있다.

나는 생각했다. 워크넷이야말로 10년이 훨씬 넘는 과거부터 이미 각종 회사의 정보와 취업을 원하는 많은 인재들의 이력이 등록된 빅데이터가 아닐까?

그리고 그 인재들과 회사를 매칭시켜 사람과 회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정부 3.0을 실현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이제는 한 IT회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손발을 맞춰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뽑을 위치에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낼때가 되면 나는 주저없이 다시 워크넷에 노크를 하려고 한다.
10여년전 내가 사회생활 첫발을 내딛을때 도움을 주던 워크넷을 통해 그때의 나처럼 갈팡질팡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워크넷, 신뢰로 사람과 회사를 이어주다. 그리고, 신뢰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워크넷’이라는 등대를 벗 삼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어느 자기개발서 첫 머리글에 ‘하면 된다.’라는 말을 벗 삼아 난관을 헤쳐 왔습니다.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다.’라는 글귀도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50대 주부의 삶은 각박하고, 바로 설 자리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왜 나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에 늘 ‘하면 된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뜻과는 다르게 흘렀기 때문에 평범한 주부의 모습보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슬을 맞으며 도로를 바

라보고 있으면 ‘아침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라고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주부였기 때문에 그들처럼 아침마다 부산을 떨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또각또각’소리를 내면서 바쁘게 버스정류장으로 향하고, 누구는 운전대를 잡고, 텀블러를 연신 들이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네 학교를 향해 걸어가며 단추를 채웁니다. 아침에 골목길을 창문으로 내다보면 ‘어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갈 길을 재촉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주부가 되고 싶었지만, 평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부산을 떨지 않는 제 모습을 거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짐했고, ‘나도 평범한 삶, 평범한 직장을 다녀보고 싶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합니다. 자식들이 출가한 후의 제2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낙오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감히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삶이 흘렀을 때 이를 수 있는 ‘성공의 열매’라 생각합니다.

평범함을 꿈꾸기 위해 했던 일

저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들 뒷바라지만 몰두했던 지난 세월이 생각납니다. 아침에 저마다 ‘삶의 터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저는 자식의 뒷모습,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전업주부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아침밥, 저녁밥, 아이들 교복 및 준비물, 숙제검사, 집 청소, 남편 심부름, 와이셔츠, 빨래, 음식 장보기, 연속극 시청하기, 유행 드라마 챙겨보기, 학부모회의 참석, 부녀회 참석, 계모임 참석 등 하루가 빠듯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바쁜 하루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랐으며, 어느덧 50대 중반이라는 나이로 접어들었을 때 공허함이 왔습니다. 제 삶이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니다. 경제적인 여건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꿈꿨던 학창시절의 이상향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니다. 제가 평범함을 꿈꿨던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니다. 삶에 치였고, 사고가 난 것처럼 멎었습니다.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무섭게 스쳤습니니다.

마침내 저는 평범함을 이루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중 첫 째는 ‘경제력’이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꿈꾸는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정작 25년이 걸렸습니다. 이미 50대 중반이 돼버린 후였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로서, 경력이 단절 된지 25년 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저처럼 선뜻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적당한 일자리를 찾는 해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첫걸음이었습니다.

길을 비추는 등대, 워크넷

저처럼 경력이 단절된 여성 혹은 전업주부가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인된 힘’을 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의 종류, 근무 여건, 복리후생, 처우개선 유무, 통근차 유무, 복지혜택 종류, 급여 조건, 요구 자격증, 기업 정보, 객관적 자료 등재 유무, 기업의 인재상, 기업 연혁 등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워크넷’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사용한지 2년이 넘었지만, 그 기계를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아들이 설치해준 ‘워크넷’과 ‘내비게이션 및 지도’ 어플리케이션은 250% 활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워크넷’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50대 중반의 여성이 일 할 수 있는 곳을 추천받을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직무를 검색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처럼 불안한 것은 누구나 겪을 것입니다. 그만큼 낯선 사람에 대한 만남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일할 적절한 곳이라 믿었습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했던 직업능력검사(L검사 - 성인용)를 구직 초반에 실시했었고,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구직활동’이 점차 등대가 제 갈 길에 빛을 비추듯 쉬워졌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겠지만,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고, 특히나 컴퓨터 활용에 대해 어눌한 50대 여성들에게는 ‘구직활동’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신문 구인광고, 교차로 신문광고, TV구인광고’는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구인자가 바라는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는 유선전화 혹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인터넷 활용에 능한 제 아들이 얘기해주거나 찾아주지 않는다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아들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다가선 평범한 삶

‘워크넷’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정부가 공인했고,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구인자, 구직자들이 활용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제가 원하는 직장의 모습이 100% 일치하는 곳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찾을 수 있다면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보필하면서 잊어버렸던 ‘적성’과 ‘꿈’을 돌이켜볼 수 있었고, 마침내 취업의 문을 열고, 합격이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리검사를 하며 ‘내가 좋아했던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자문하고, 대답하며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을 서서히 찾았습니다. 또 일련의 과정(가이드라인)을 천천히 밟아가면서 ‘이력서 등록’, ‘증명사진 등록’, ‘경력사항 입력’, ‘자격증 사본 업로드’, ‘최종학력기재’, ‘좌우명 및 자기소개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지만, 친절하게 답변했던 상담직원이 떠오릅니다. 이력서를 어떻게 등록하며, 어떻게 하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단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쭙보았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조목조목 잘 설명을 했었던 그 분은 잊히지 않습니다.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나도 평범한 직장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설레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점차 변했습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도구를 활용하여, 잃어버렸던 꿈과 제 모습을 발견한 것은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큰 수확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좌우명처럼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취업'에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도 직장과 취업을 갈망하는 수많은 청년들과 저 같은 주부들은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 같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취업을 했습니다. '워크넷'이라는 등대를 밧 삼고, 어둡던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옆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잘 만들어놓은 '등대'를 잘 활용하신다면 지금은 어둡겠지만, 점차 밝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기회가 첫 출발이 되어 평범한 삶을 꼭 살아가고 싶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행복한 엄마의 일자리

새벽 6시에 출근길에 나섭니다. 용인에서 서울 중구까지 가는 광역버스로 1시간 넘게 달려가면, 그 때부터 화장실 갈 틈도 없는 치열한 업무 전쟁. 저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화장품 기업에서 가장 전투력 최강의 마케팅 부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9시가 넘어 퇴근 버스를 타고 서둘러 집에 돌아오더라도 그 시각은 10시 이후였고, 아이들은 이미 엄마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오늘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몇 마디 듣는 것이 그 당시 엄마 역할의 전부였던, 바로 일 년 전 저의 생활이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쳐가던 어느 날, 저는 제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짜증이 점점 늘던 첫째 아이가 틱 장애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이니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감당하기에 아이들은 너무 작고 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돼”

벚꽃이 질 무렵, 저는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아까운 자리다’, ‘네 경력이 아깝지 않느냐’는 주변의 만류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엄마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과감히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 아침밥을 함께 먹고, 손에 손 잡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해두고 시간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아이들은 엄마를 두 팔 벌려 맞아줍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놀이터에 들려 땀나도록 놀고 나면 저녁밥 한 그릇씩 똑딱하지요. 씻겨주고 책 읽다가 함께 잠이 듭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호흡하며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니, 아이들은 웃음이 많아졌고 저도 표정이 밝은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로서의 행복, 육아하기의 즐거움을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엄마로서의 고민은 줄었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단어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력단절. 경단녀. 재취업. 여성실업 등등...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에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공무를 보러 들렀던 구청에서 워크넷 관련 책자를 보게 되었고, 지역고용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구직자 심리상담 서비스’였습니다. 14년의 커리어우먼에서 온전히 엄마로 살아온 10개월이 아직은 어색한 저에게는 잡히지 않는 불안감이 내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맘으로서의 고민을 전문가와 심도깊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에 용인고용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 한 결정이야”

세 번의 상담, 세 시간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가장 귀중한 세 마디가 제 뇌리 속에 깊이 박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말을 따라 전 눈을 감고 양손으로 제 양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며 한번 쓰다듬어 주고,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두 번 토닥여주고 “잘 한 결정이야”라고 말하며 저를 힘주어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상담 과정을 통해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난 좋은 엄마야”라고 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기특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도움을 준 서비스는 바로 워크넷 모바일 앱이었습니다. 앱스토어를 통해 <워크넷 앱>을 다운로드한 저는 수시로 검색어를 바꿔 입력해가며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커리어 관리를 위해 사람O, O코리아, O크루트와 같은 민간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몰랐던 사실, 워크넷 하나면 이 모든 사이트의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었던 기준은 딱 한 가지, 육아와 병행이 가능할 것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지역이나 중소기업이지만 여성이 다니기에 좋다고 소문난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2개월 정도의 재취업 노력 끝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공공기관으로 기혼여성에 대한 배려심이 높고 근무만족도가 워낙 높아 경쟁률이 치열했지만, 직무에 잘 맞는 경력사항이 반영되어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3개월 남짓 되었지만 오랜 직장처럼 편안하게 근무하며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균형 잡힌 직장맘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만큼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자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춰가고 싶었던 저에게 고용센터에서 만나게 된 ‘구직자 심리상담 서비스’와 ‘워크넷 모바일 앱’은 제 인생의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해준 보석같은 서비스였습니다. 엄마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하나도 놓치지 않게 도와준 워크넷과 용인고용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력단절로 고민하는 엄마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아름다운 동행, 희망의 나라를 떠다.

작년 초 어렵사리 공채로 입사한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가장으로서 거둬 고민하며 몇 번이고 생각해 보았지만, 타지로 발령을 받아 임신 중인 아내와 떨어져 있는게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는 일전에 유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몹시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산전우울증까지 겹쳐 저로서는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걱정이 되어 퇴사를 결심할 수 밖에 없었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산 위험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곁에서 돌볼 수 있어 마음이 놓이고 편하였지만,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기에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들어 신입으로 공채에 지원하기에는 나이뿐 아니라 자격요건에서도 20대의 취업준비생들에게 밀려서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해보고자 워크넷을 통해서 지역 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조건이 맞는 구인업체를 정하여 지원해 보았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다는 판단과 더불어 최근 노동시장 현황과 취업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날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인정보를 확인하던 중 우연찮게 워크넷 우측 상단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 확인해보니 취업지원과 관련된 항목들이 다양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하고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취업진로상담 항목을 선택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를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된 저의 모습을 보고 담당 상담선생님께서 특강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고, 취업을 위해 저의 경력과 자격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알선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흥미와 성격 등을 통해 희망하는 직종과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워크넷에 있는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를 통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과 현재의 나의 모습 등을 확인함으로써 재취업과 더불어 직장적응을 위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선생님께서 제가 취업지원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주의 깊게 보시고 경력과 더불어 자격증까지 취득할 경우 재취업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에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취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관련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실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 간의 노력 끝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워크넷을 통해 올라오는 구인정보를 확인하면서 취업지원 관련 업체에 지원한 결과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구직을 위해 워크넷을 기본으로 활용하는 편이지만 다른 취업사이트에 비해 지역검색과 구인정보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직업정보와 직업심리검사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단순히 구인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자신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 앱을 통해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구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만 급급하였지만, 워크넷을 통해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워크넷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폭 넓게 활용하면서 워크넷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워크넷과의 아름다운 동행, 제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워크넷고객센터 **1577-7114** | 이메일 workmaster@keis.or.kr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